

나는 세상이 알아줄 만한 사람일까?

— 선거철에 ‘選良’을 생각해 보며 —

이 중 산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때 이른 더위 속에 수많은 인재들이 봉사라는 깃발을 들었다. 그것도 치열한 싸움꾼으로. 그리고 끝이 났다. 勝者는 남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 함박웃음을 피우고, 敗者는 봉사라는 부채를 떠안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수많은 인재들의 편안하고 후덕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새겨진 결개그림이 아이러니다. 돈 잃고 채무를 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건만, 유독 정치판에서만 돈 잃고 채무(봉사라는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을 寤寐不忘 그리워하니 말이다.

그 뒤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비수를 쫓는다. ‘이전투구’ 라고, ‘사기꾼’ 이라고, ‘도둑놈들’ 이라고 비난의 비수를 쫓는다. 반은 질시의 어투로.

꽤거리를 지어 무수한 언어의 홍수가 일어난다. 그 속에 협잡과 망언이 넘쳐난다.

그리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신도들을 거느리면서 막강한 힘으로 군림하는 錢神(돈)의 망령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결코 사양하지 않는다.

결국, 사정당국의 칼끝은 끝내 다가오고, 교도소 담장을 거닐던 꽤거리는 좌불안석이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 담장에 서있게 하였는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百尺竿頭에 선 그들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누가 알기나 하겠는가!

이유도 모르는 끝 모를 슬픔 속에 세상에 속한 사람인 나는, 문득 論語가 보고 싶다. 왜 일까? ‘제 몸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자(克己復禮爲仁)’ 는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춘추시대에魯나라의 실권자인季康子가孔子에게 ‘子路(仲由)는 정치에 종사할 만한 사람인가요?’ 하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자로는 성품이 강직하고 결단성이 있어서 일을 처리함에 과단성(果)이 있으니 정치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에 또 계강자는 ‘子貢(端木賜)은 정치에 종사할 만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자공은 현명하여 사리에 밝고 고집스럽지 않아 막혀있지 않고 통달(達)한 사람이니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라고 말했다.

다시 계강자가 공자에게 ‘子有(冉求. 冉有)는 정치에 종사할 만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자유는 생각이 깊고 전문가적인 재능(藝)이 많아 상황에 따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니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 옛날 공자는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으로, 과단성(果), 인품의 통달함(達), 전문가적인 지식인 재능(藝)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선거에 의해 뽑힌 지도자를 우리는 選良이라고 부른다. 選이라는 한자는 ‘걸어서 탁자나 단 위에 올라가 암전히 앉아 대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야흐로 제사에 바쳐질 희생이 될지도 모를 최후의 선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며, 良이라는 한자는 ‘궁과 궁에 딸린 통로로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상징한다는 설과 ‘좋은 곡식을 골라내는 기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으니 여하튼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량이란 ‘뛰어난 인물을 뽑음’, ‘뽑힌 훌륭한 인물’, ‘국회의원’이라는 뜻으로 알고 쓴다. 그러니 그러한 선량에게 ‘果. 達. 藝.’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서야 되겠는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도는 세상이다. 그러하니 과단성을 논한들 무엇 하겠는가. 과단성은 넘쳐서 탈인 세상이다.

통달함(達)이란 패거리에 매이지 않고, 무수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사통팔달의 인품이다. 원래 黨이란, 자파의 잘못은 감싸주고 눈감아 주며 다른 패거리를 깔아뭉개는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黨人들은 ‘내편이 하는 것은 틀려도 옳은 것이요, 남의 편이 하는 것은 옳아도 틀린 것이다’라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며 살고 있다.

하여, ‘군자는 두루 사랑하며 꽤거리를 짓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고 하는 것이니, 통달한 사람이란 이른바 君子를 뜻한다 할 것이다.

전문가적인 지식·재능(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데 너무도 쉽게 잇는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최소한 그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지식과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알아야만 면장(面長-아주 작은 행정 구역의 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사실 ‘알아야 면장(免牆-담장을 마주보고 서있는 답답한 신세를 면함)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으로 전문가적인 지식과 재능이 있어야 免牆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위에 오를 수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걱정하며, 남이 알아 줄 수 있을 정도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라(不患無位 患所以立, 求爲可知也)’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무더운 날씨에 걸개그림 속에서 환한 웃음 지으며 봉사의 깃발을 높이 치켜 든 그분들의 ‘果·達·藝’는 과연 어떠한가?



‘정치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치를 입에 담지 않아야 한다(不在其位 不謀其政)’,

‘자신은 올바르게면서도 그 올바름으로 남에게 왜 나처럼 올바르게 처신을 하지 않느냐고 공격하여 해치지 않아야 한다(方而不割)’,

‘자신은 청렴하면서도 그 청렴함으로 남에게 왜 나처럼 청렴하지 않느냐고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廉而不劌)’,

‘자신은 곧게 행동하면서도 그 곧은 행동으로 남에게 왜 나처럼 곧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공격하여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直而不肆)’,

‘자신은 출세하고 영광되게 되었으면서도 그 출세하고 영광됨으로 남에게 너는 왜 나처럼 출세하지 못하였느냐고 자랑하여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光而不耀)’
는 것이 君자의 도리이거늘,

나 또한 鄙陋한 書生으로 떨어져 狂直함에 또 가당찮은 입을 벌리는 愚를 범하니...

이에 나는 나에게 말한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呵呵呵(푸하하)!!! 